

Priere pour Mali

Adress : M. Jung In Kwun
B.P E4160 Bamako Mali
West Africa
TEL (223)9215-4340
E-mail : jiktlc@hanmail.net
한국 우리은행
19507028378 류관숙
말리 사역 후원 -우리은행-
1002-340-728055 정인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마 14:15-21)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매년 심장검사를 위해 한국방문을 합니다. 혈압이 높아져서 약을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다고 하니 감사하네요. 무더운 한국 날씨에 지치지 않는지요... 이번 기도편지는 말리상황에 대한 소식을 제가 올려드리고 미셸 선생님이 7-8월 말리 사역에 대한 보고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미셸 선생님이 보내준 편지 원본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리상황

지난 5월에 북쪽에 반군세력으로 인하여 18개 마을에서 약 4,000명의 이주민들이 Niangfunke 마을로 이주해서 도움을 요청을 한다는 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기아대책 기구를 통해서 약

1900만원의 비용이 후원이 되어서 597가정에게 쌀과, 조, 그리고 밀가루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이주민들이 있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급한 시간에 지원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히 Niangfunke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아마두 목사님과 사역하시는 교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기에 무슬림이 대부분인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의 역할을 알려주는 시간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Niangfunke 시장님의 감사 편지도 받을 수 있었고 한국의 기아대책에게 감사를 전하기



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이 엠폭스로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사관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 8.15(목) 보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엠폭스 관련, 민주 콩고 및 인근 국가로의 확산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바마코 내 피부과 병원 및 90개의 원격 피부과 진료소에 경계 경보를 발령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하였다며, 의심 증상 발현 시 가까운 진료소에 방문할 것을 촉구함. 8.20(화) Assa Badiallo TOURE 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말리 내 확진 사례는 없으며, 엠폭스 관련 의심 사례 예방 및 탐지 관련 경계 수준을 보다 강화했다고 밝힘.

10여년전 에볼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확진되지 않고 조기 종료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현재 말리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배수시설이 거의 없어서 폭우처럼 내리는 비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도 큰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전기상황은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리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약 400메가 와트)을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기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어려움이 생긴다면 말리의 경제적 상황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두손 모아 주십시오.

말리사역 (Michel 선생님이 보내 준 말리 사역 소식입니다)

토요어린이 프로그램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몇 달동안 매달 2번째 토요일에 우리는 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가르치며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암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점심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



누는 것입니다. 7월에는 135명이 넘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끝날 때에 매 만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암송과, 찬양 그리고 게임을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무슬림들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99%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성경, 찬양) 배우기 위하여 오고 있습니다. 부모들 대부분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8월에 우리는 101명의 아이들을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찬양두개를 배우고 에베소서 5:15-21을 배웠습니다. 메시지 후에 아이들을 성경을 암송을 하고 사랑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바캉스 프로그램



2024년 7월 1일에 우리는 바캉스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목적은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캉스 초에는 1-6학년에 137명을 아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책(불어) 읽기, 쓰기, 듣고 쓰기 등 다양합니다. 9월까지 수업은 지속됩니다. 많은 학생들의 부모들이 우리의 프로그램을 환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가족들은 매우 가난합니다. 가장

들은 그들의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데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고용의 문제가 있고 일하는 사람들은 보수(월급)가 좋지 않습니다. 바캉스 수업은 그들의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런 도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역(방역)

2024년 7월 1일에 방역시작했고, 1주일에 1회 각 가정에게 방역 실시합니다. 현재는 150가정(약 20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역을 한지 8번째 주입니다.

우리는 수혜자들과의 오해도 없고 건강상의 문제도 없으며 방역약품 수급의 문제도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은 우리의 일을 환영하고 방역을 좋아하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방역을

할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에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방역을 하기 전에는 집에 모기, 도마뱀, 그리고 다른 곤충들이 많이 있었고 아이들은 매번 말라리아에 걸렸지만 방역을 시작한 이후로 모기가 적어져서 자신들의 삶에 큰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충이 줄고, 가족들이 병에





걸리는 일이 줄어들면서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주 두 차례씩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살포 시기를 한 차례 더 추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 시행초에 많은 말라리의 이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아이들에게 말라리아 발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족들은 자신들의 집에도 방역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리 사역을 위한 제안

현재 7명의 교사들이 학교, 교회, NGO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정들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서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도 가족들의 동참을 통하여, 토요 프로그램, 주일 예배, 아이들 프로그램 그리고 바캉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3년안에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2025년 학기는 70-100명의 학생 모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위한 최소 인원이 160명입니다. 자립을 위하여 3년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사 1명의 평균 월급이 218,000원입니다. 자립을 위한 시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 프로그램은 전도집회와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1회시 약 30만원의 비용으로 100-150명의 아이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토요프로그램은 순수 훈련과 전도를 위한 시간입니다. 말리 기독교인들이 성장하고, 무슬림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를 위하여 52명의 후원자(매주 토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후원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 그리고 말리 현지 교회들과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세누지역에 복음센터가 복음전파의 큰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 토요 영성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매주 30만원의 재정이 채워지도록(프로그램 진행과, 식사, 간식등등)
- 아프리카 전지역의 엠폭스가 멈추도록
-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위하여 마무리를 위해서 3천 5백만원이 필요합니다.
- 바캉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음 전파와 세누지역 아이들의 지적, 영적 성장을 위해
- 정인권 선교사(비후성심근증)의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 세누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가 늘 유지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 저희 크리스찬 마을 초기 멤버들의 영성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2024년 8월 정인권 선교사 올림